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가족기능과의 관계

김태언, 양수남, 최지호, 고희정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가족은 건강관리의 근본이 되는 배경으로서, 개인의 건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특히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건강행위와 가족기능을 평가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의 남녀 중, 고등학생을 각각 5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흡연, 음주, 식사, 운동, 수면 등 건강행위와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이용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결과: 설명에 적절히 응답한 712명의 조사 대상자 중 중학생은 401명(56.3%), 고등학생은 311명(43.7%)이었고, 남자가 354명(50.4%), 여자가 348명(49.6%)이었으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는 360명(50.6%), 중소도시 및 읍면의 학생은 352명(49.4%)이었다. 흡연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는 흡연군 127.0 ± 23.3 과 비흡연군 144.9 ± 23.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남자는 168g, 여자는 132g의 주당 알코올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고알코올군과 저알코올군, 그리고 비음주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사후 검정에서 주로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식습관이 규칙적인 군과 불규칙적인 군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 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건강 행위 중 운동과 수면은 가족기능과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 청소년의 건강행위 중 흡연, 음주, 식습관은 가족기능과 관련이 있었고, 운동과 수면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중심단어: 가족기능, 건강행위, 흡연, 음주, 식사, 운동, 수면